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주간 충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제3차 정기지 훈련 “그리스도인의 자제부인”(마 26:39)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 3월 27일, 갑작스레 찾아온 쌀쌀한 날씨였지만 중헌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뜨거웠습니다. 아침까지 내린 비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이 모든 환경은 관음습 사모하는 은총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처에서 온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예배실을 가득 채웠고 은총의 열풍으로 깨어지며 가슴 벅쳐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집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집회)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동시에 우리의 함께 계심의 내재성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며 본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며 우주를 돌보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들이 이 두 개념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에도 계시며 멀리에도 계심을 깨닫게 된다. 즉,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내재하신다. 그러나 이들과는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시지만 우주 위에도 계시고, 우주로부터 따로 독립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시므로 인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는 현저하게 고귀하고 높으신 분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것들과 구별된 분이시다(딤후 6:15-16).

이처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인 분으로 우주 안의 모든 것로부터 구별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인간과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그분이 온전하심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한다(시 113:4-6).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한다(시 108:5, 123:1). 하나님은 우주만물에 있는 이 엄청난 힘의 근원이다. 하나님만이 홀로 만유의 통치자이시므로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어떤 법이나 권력이나 운명은 없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 그는 아메바보다도 높으시고 인간과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는 그의 무한성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과의 차이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무한하고 초월적이라면,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초월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에 대해 어떠한 의미 있는 것을 언급조차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지성적이며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목적에 관하여 인간에게 나타나 주셨고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이해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본

체와 본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적은 부분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다. 곧 성경을 통해서다. 성경 말씀에는 인간이 자신의 통찰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속성과 인간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구원 계획을 신자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초월하시고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시도 나타나 주신다(마 4:12-13; 요 2:28-32).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주 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의미를 주셨고 또 온영하를 주관하시고 계신다(골 1:17).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돌보시고 운행하시며 피조물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다(히 1:2-3).

우주는 환상이나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에 의하여 일부 그 패턴이 밝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내재는 하나님의 편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재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 그의 창조물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얼마나 가까이 함께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신자들은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내재성이다. 특히 그의 가르침 중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은 하나님 아버지의 내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먹은 것을 주시며 들의 꽃들에게 웃을 일히시고 인간들을 보살피신다(마 6:26-30). 그는 하늘의 별들을 세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며 풀을 자라게 하시고 동물들에게 먹은 것을 주신다(시 147:4-9). 신자들은 영의 눈을 열어 야단하다(사 40:26). 바울은 회람의 아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내재성을 설명해 주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뻐하고 존제한다고 그는 외쳤다(행 17:24-28).

하나님의 내재성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대하시는 그의 무한한 친밀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시 37:23-24). 하나님은 각자 각자의 마음 속의 비밀도 다 알고 계시며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피해서 아무 것도 비밀히 행할 수가 없다(시 44:21). 이사야는 외친다(사 29:15-16).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평안이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시 37:5-6; 롬 8:38-39).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내재하신 특별한 예이다.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작고도 낮은 세상에 오셨다(빌 2:6-8). 또한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내재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는 성육신하신 것과 다르다. 우리는 감추어졌던 비밀을 그가 성육신함으로써 볼 수 있게 되었다(요 1:14, 18).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 인간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시는가? 그러나 이 신비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GOD'S ANSWER

⁽¹⁾I will stand on my guard post And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 And I will keep watch to see what He will speak to me, And how I may reply when I am reproved. ⁽²⁾Then the LORD answered me and said, Record the vision And inscribe it on tablets, That the one who reads it may run. ⁽³⁾For the vision is yet for the appointed time; It hastens toward the goal, and it will not fail. Though it tarries, wait for it; For it will certainly come, it will not delay. ⁽⁴⁾Behold, as for the proud one, His soul is not right within him;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Habakkuk 2:1-4)

Habakkuk was a prophet who trusted God, yet was perplexed about certain problems. He prayed, "How long, O Lord, will I call for help, and You will not hear? I cry out to You, 'Violence!' Yet You do not save" (1:2). David also was puzzled about certain issues. He similarly prayed, "How long, O Lord? Will You forget me forever?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Ps. 13:1)? As believers, when troubles come we turn to God for answers. We pour out our hearts to Him looking for help. He is our God and we need Him to live. Some people call on the Lord, but do not receive an answer because of their unclean and wicked hearts. The Lord always responds to righteous believers; He always answers their call. Habakkuk prepared himself to receive God's answer, "I will stand on my guard post and station myself on the rampart; and I will keep watch to see what He will speak to me, and how I may reply when I am reproved" (v. 1). Both Habakkuk and David asked the Lord God when He would answer their cries for help, but God did not give them an immediate answer.

The Lord God clearly answers His children's prayers. He told Habakkuk, "Record the vision and inscribe it on tablets that the one who reads it may run" (v. 2). God asked Habakkuk to write down His answer, so that we could read it and run to proclaim it. 1 Timothy 6:3-5 says, "If anyone advocates a different doctrine and does not agree with sound words, thos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with the doctrine conforming to godliness, he is conceived and understands nothing; but he has a morbid interest in controversial questions and disputes about words, out of which arise envy, strife, abusive language, evil suspicions, and constant friction between men of depraved mind and deprived of the truth, who suppose that godliness is a means of gain." God gives us a clear answer, all we need to do is read it. 2 Timothy 3:16-17 tells us,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adequa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We need to read our Bibles. It tells us the future, gives us the truth, and equips us with valuable things. So often, our minds focus more on other things than on Jesus, so that when something goes wrong we wonder where He is. "But the word is very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you may observe it. See, I have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prosperity, and death and adversity" (Dt. 30:14&15). God's answer is always with us, we just need faith to hear it.

God answers prayer at the proper time. His answer to Habakkuk concerned the future, the end times, "For the vision is yet for the

appointed time; it hastens toward the goal and it will not fail. Though it tarries, wait for it; for it will certainly come, it will not delay" (v. 3). God's response to Habakkuk relates to every individual. The end times is a reality, not a lie or exaggeration, it is something that is going to happen, which is why we have to listen. Daniel 10:14 says, "Now I have come to give you an understanding of what will happen to your people in the latter days, for the vision pertains to the days yet future." Revelation 10:5-6 reads, "Then the angel whom I saw standing on the sea and on the land lifted up his right hand to heaven, and swore by Him who lives forever and ever, who created heaven and the things in it, and the earth and the things in it, and the sea and the things in it, that there will be delay no longer." Right now God is giving us a period of grace and mercy, but His judgment time is coming soon. Before that day, you have to listen. Proud people will never find God's answer, so that destruction will overcome them.

God has given us the ultimate answer, the secret blessing. He told Habakkuk, "Behold, as for the proud one, his soul is not right within him;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v. 4). Faith is the answer. The righteous must live by faith, not by their effort. This is the truth of the Holy Spirit! God's word is really telling us that we can do it by faith. It does not make a difference whether you are poor or rich, educated or uneducated, sick or healthy. God gave everyone His Word; all you have to do is use your faith. Psalm 119:141 says, "I am small and despised, yet I do not forget Your precepts." Psalm 119:143&144 also say, "Trouble and anguish have come upon me, yet Your commandments are my delight. Your testimonies are righteous forever; give me understanding that I may live." This is the secret of the living.

My dear friend, the wicked are lik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but the righteous are like a firmly planted tree which never withers (Ps. 1:3&4). The proud will fall, so please drop your pride. 1 John 5:4 says,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our faith." Paul loudly proclaimed,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 1:17). Too many Christians question why God has not answered their prayers and wonder what is wrong with Him.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God answers your prayer. He wrote down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nd provided you with the Holy Spirit to understand it, so that all you have to do is read and believe it. Do you read it? Do you believe it? The answer is right in front of you. Can you see it? 

하나님의 응답

-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옹허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하박국 2:1-4)



김성관 목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도 이해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합 1:2). 납득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던 다했도 역시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시나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시 13:1). 신자로서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온 마음을 쏟아놓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 없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정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1절). 하박국과 다했 모두 도움을 구하는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어느 때에 응답하시겠냐고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응답을 늦추고 계셨습니다.

이 목시를 기록하여 새기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도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2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나가서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6:3-5는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식의 재로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름이 일어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16-17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 일을 말해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너무나 자주 빼앗겨 있어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하고 반문하기 일쑤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신 30:14-15).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은 미래, 곧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옹허리라”(3절).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종말은 허구나 과장이 아니라 실재이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다니엘 10:14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주의 일이니라” 요한계시록 10:5-6은 말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는 천종과 자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만세 전에 비밀로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4절). 믿음이 그 해답입니다. 의인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든지 부유한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시편 119:141은 말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143-144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삶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지만 의인은 견고하게 심긴 나무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시 13:4). 교만한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5:4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바울은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고 있습니까? 읽는 그것을 또한 믿습니까? 해답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 10월 28일,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훈련받은 나 자신과 이 훈련을 통해 키워 주실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저 수능을 28일 앞둔 수험생으로서의 나 자신을 보았을 뿐이었다.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온전히 예배에 마음을 쏟지 못한 나는 신만하였다. 청지기 훈련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나를 완전히 바꾸실 주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다. 청지기 훈련을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교만한 나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무릎 꿇게 하셨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자녀인 나, 나의 모든 것은 수동형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못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능동형이다. 주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것은 나이다. 단지 문만 열면 된다. 그러나 이것조차 주님이 주신 마음일 때 허락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주님께 한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찬송가 71장을 부를 때는 목이 메어 부를 수가 없었다. 그렇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그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만 할 뿐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고혜전(고등부)

● 말씀을 들으며 끊임없이 부여 주시는 은총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 된 나를 향하여 배후신 놀라운 은총임을 깨닫게 하였고 아직까지 내 속에 엄청난 값이 남아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지적하여 주시며 회개하라고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어내 놓지 못하며 그저 마음 속 깊이 묻어둔 채로 살면서 현재의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며 또 평안한 것처럼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삶이 나의 신앙의 열매 때문이라고 착각까지 하면서 자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고통을 기쁨으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소중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분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대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만현(대학부)

● 가장 곱박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 그 때로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쁨을 잃고 집이 불타 없어지고 의탁 회개에서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목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두려워하는 이 믿을 없는 자를, 천국의 영광은 바라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은 두려워하는 자를, 오늘도 주님은 골고대로 가시건만 저는 깨달지 못했는지요. 해가 거듭될수록 믿음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선의 옷만 껴 입습니다. 용서하시고 천국 문에 이르도록 놓지 말아 주소서. 박영미(집사, 2교구)

●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지금 처하여 있는 이 상황에서 기쁨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부인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본다. 우리 앞에 천국이 놓여져 있다. 천국은 절망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곳을 소망할 때 나에게게는 기쁨과 거룩한 용기가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붙잡는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포기하셨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기도하리라.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심장의 박동이 멎는 그 순간까지... 조정숙(집사, 17교구)

부인하는 은총의 고백들!

● 주님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갖고 닦으십니다. 대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으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뜻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나의 생각은 항상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이제 나의 삶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곳에 처하게 되든 그곳이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나를 행하신 분이신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비록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천국입니다. 주께서 내가 있을 곳을 택하여 주신 그곳에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고 요동치 않으며 거룩한 용기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약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나에 대한 질문 속에서 스스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분은 약하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김옥(청년부)

● 신앙의 우월함에 빠져 있는 제 모습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영생을 소망하는 참신자임을 깨달았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꼭 필요할까? 항상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망망하고 돈과 명예에 귀 기울이고 그릇된 자만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도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지만 자식을 내주는 것, 그것도 생명을 내준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인지 너무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께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하나 하나님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다듬어 주셨다. 또한 알았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고 다듬어서 그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다. 홍해수(집사, 11교구)

● 나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능력과 환경이 세상을 살며 당신의 일을 하기에는 모자란다고 늘 투망한 하지 않았는가?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주셨고, 언제나 주고 계신데도, 가라 하신 길이, 하라 하신 하루의 사소한 일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나 스스로 나의 그릇을 은혜와 생명으로 옮겨 뒤로 숨겼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긴데, 그 길을 따라 간다면 아직도 그 길에 손해날까 봐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다.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인가! 버리기 힘든, 아직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몰라서 아버지의 말씀이 여전히 손해나는 장사 같은 것이다. 이런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굳고 굳은 마음이 되어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못 하는 죄인 중의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했던 죄인을 살리셨고, 친히 ‘천한 목자’가 되사 그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아버지의 뜻대로 내리며 이 세상에서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이 이미 임한 천국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엄혜원(집사, 8교구)

●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마음을 너무 부끄럽게 하였습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지만 나는 과연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랐는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서 살아온 모습이 너무나 어이없는 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남에게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 이제 정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갱신해 주신 동안에 기도하신 그 자기부인의 기도처럼, 나도 남보다 죽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마음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스스로 약속하였습니다. 남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최정미(예배담당)



은퇴를 앞둔 권사가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눅 18:13). 죄인 중의 죄인인,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세리 같은 저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가능하리요?" 그저 주님께 감사, 감사의 고백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1969년 3월 28일 막내 동생의 전도로 저는 충현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완고한 유교 가정에서 자란 저는 신앙 생활 자체가 낯설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충현교회는 총무로 있었는데 저의 가정이 강남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어 '이제 교회와는 멀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저를 향한 사람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구역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사 심방을 오셨고 너무나 부족한 제게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당황하여 극구 사양하였지만, 기도 후에 결정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의 말씀처럼 저도 주님이 주시는 직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무 것도 몰랐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구역장이 되어 구역 식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예배안내, 부지역장, 소망부 부감 등 다양한 곳에서 주님의 종으로 섬길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욱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모일 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저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쁘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죄의 흔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은혜는 제가 저의 죄의 흔적을 씻어 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다시 죄를 범해도 또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다 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김 순(권사, 5교구)



♥ 기도는 정말 우리의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교지 농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1:1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기쁨이 넘쳤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 드렸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고,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고국에 돌아와서도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김희정 성도)

♥ 복음에 빛진 자의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육이 모두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절필을 당한 감람나무인 것을 감사했으며, 복음에 빛진 자의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전도는 처음이라며 감격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배부심이 우리에게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외롭고, 가난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요 21:15).

(이계옥 집사)

♥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깊은 회개와 감사를 드렸던 귀한 시간

선교의 소중함, 절실함을 피부 깊숙이 느끼며 깨달았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깊은 회개와 감사를 드렸던 귀한 시간이었다. 말씀을 언제든지 풍족하게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드리며 그들에게 시어준 작은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그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현주 성도)

♥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소외된 생활, 건청인들과의 차별화된 농아인들의 삶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오직 눈물만이 앞을 가리울 뿐입니다. 그들은 낯선 외국인인 한국 사람들인데, 그것도 농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여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크게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의 농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수화로 통역해 주어야 하는데 농아인협회 전임 수화통역사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이었습니다. 주일에 한 농아인 부부가 아이를 안고 참석을 하였습니. 며칠 전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사람인데, 남편이 크리스천으로 그가 앞으로 수화통역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언하였습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 곳의 농아인들이 영원토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일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명범 안수집사)

♥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었는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02년도에 선교를 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어려움과 함께 '이곳에 다시 올 수 있겠나' 했는데 3년이 지난 올해 주님께서 그곳에 다시 다녀오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3년 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었는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 농아인들은 수화 통역, 종교 체제 문제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나 자신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교회에 다니고 있고, 찬양 부르고, 수화통역 제공도 어려움없이 받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민경주 성도)

♥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깨달았을 때 역사를 시작하셨다.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연신한 수화로로는 제대로 의사 전달이 힘든 상황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역사를 시작하셨다. 농아인협회를 통해 그 나라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밤을 새워가며 수화를 다시 배우고 전도 연극의 대본을 수정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많은 농아인들의 마음을 열어 놓고 계셨다. 서툰 수화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만난 농아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었다. 다음 날 속으로 찾아와 가장 밝은 마음을 보이는 사람, 한국에 가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사람... 듣고 싶어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농아인들의 심령은 갈급했다. 농아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받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그러나 작지만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썩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변창대 안수집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회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었다. 내 마음의 식은 믿음의 열정을 회개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바울의 열정을 본받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았다. 주님께서는 첫날부터 내 계획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아서 주님께서 내 생각들을 막으셨다. 나를 다 버리고 기도롭게 준비했을 때에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시골의 순진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처음에 우리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투 말 속에서 함께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부정하고 우리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았다. 그런데 성경책 첫 장을 읽는 순간,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다. 유창하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서투른 우리의 한 마디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단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나..." (행 12:15)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어리고 힘 없는 계집아이고 참말이라고 힘써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만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은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역이 끝난 때가 가까워 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처음 사역을 할 때는 두려웠는데 사역을 할수록 그 땅의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싶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상으로 가득 차서 매달라 있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더 뿌리고 싶었다. 비록 내가 뿌린 이 작은 씨앗들이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맘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시골의 천진한 아이들과,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다가 성경책에 빠져들던 사람들, 서투른 우리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던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강예슬 (대학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선교를 준비할 때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갈수록 힘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뿐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리하여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한 것뿐이다. 그 땅을 바라보며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떠올랐다. 이 땅에 와서 온갖 환란과 핍박을 견뎌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통역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붙잡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다물어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잘 몰라서 조금은 서먹했던 대원들에게 다가가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외로'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 하루하루 대원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대원들에게 더 관심 갖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

나는 질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취 큰 것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조미순 (집사, 17교구)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29일(토) ~ 11월 5일(토)	유난부	김경호	10월 31일(월) ~ 11월 5일(토)	원로장로	하대선
10월 31일(월) ~ 11월 5일(토)	소망부	이규규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갖게 된 종교, 많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한 걸음 주님께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가겠습니다. (박석화)

♥ 새가족부에 참 잘 왔다는 생각입니다. 세신자나 나 같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다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니 다. (이이자)

♥ 저는 매우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게으른 사람인데도 교회에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박주용)

♥ 갑작스럽게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었고, 그 믿을 또한 도저히 내 안에서 느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임영옥)

♥ 예전부터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겠습니다. 아멘. (박영숙)

♥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나의 육신의 아버지께 함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였지만 남편은 아니었는데 아버지 지에서 남편 이름을 써서 성경에 넣어주고 새벽마다 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김종란)

♥ 같이 수료하지 못한 새가족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양육해 주셨듯이 저도 봉사할 기회가 오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박수영)

♥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인오)

♥ 새가족부 교육을 수료하는 날, 즐겁기도 하고 부단감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오는 날이 언제나 즐겁게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재영)

♥ 3월,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한 신앙심을 새가족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출역하면서 한층 열심히 신안 생활할 것을 기도합니다. (변한성)

♥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와 부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부가 같이 오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도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로함을 감사드립니다. (유금숙)

♥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총련교회 새가족부 양육을 마치면서 복음을 통해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니 감사합니다. (김금자)

♥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어린이이며 장송기만 합니다. 이제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이명철, 이명순 부부)

♥ 6개월간 교육받고 곧내 아님료. 처음엔 어색했는데 반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은혜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유형석)

교회 랑방 87 안수집사 중창단

마음을 합한 사람들

마음을 합하지 않고 소리만 합할 수는 없으리라. 안수집사 중창단원들은 마음을 먼저 합한 사람들이다. 마음을 합하지 않았다면 소리를 합하지 못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노래는 이미 온전한 찬양이 아니다. 이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중창단의 전체 조건의 질자기를 통해 마음을 합한 사람 들이란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 주님은 모퉁에서 보시는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중창단에 소개해 주십시오.

중창단은 각 파트에 세 사람씩 모두 열두 분이 단원입니다. 안수집사 월례회나 총회 때 찬양을 드리고 금요일이나 주일에 찬양을 드립니다. (포장열, 지화자)

중창단에 들어오신 동기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제가 중창단 단원이 되기 전에 중창단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단원이 되기를 사모했 고 결국은 중창단에 들어왔습니다. (나승은)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요?

찬양의 특성상 파트 구성이 안 되면 연습이 불가능해서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연습 을 하고 배우 하기도 합니다. (포장열)
연습량이 부족하면 평일에도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어떤 때는 10시간 동안 연습을 하기도 했습 니다. 그러나 누구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연습을 못 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성범)
먼저 공동체 안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연습 때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습니다. (경민수)
영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목소리의 화음을 맞추는 것이 아름답게 생각됩니다. (이성영)

찬양준비는 어떻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매일 시간을 내어 많은 부분을 무수히 반복해서 연습 을 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암송합니다. (공영록)

내가 먼저 가사에 은혜를 받아 눈물 이 핏 돌고 가슴이 찡애하 하기에 암보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성범)

제 평생을 찬양하는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며 운 령입니다. (공영록)

주께 영광 돌리고 회중에게 은혜를 돌리는 자세로 더 잘 해야겠다고 다짐 합니다. 찬송가 204장처럼 찬양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

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이연진)

악보가 주어지면 가사를 숙지하고 찬양이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며 지파사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나승은)

중창단으로서의 각오는?

나를 부인하고 내 모습 아래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공영록)
어떤 일도 피하지 않고 맡은 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섬김의 본이 되고 싶습니다. (이연진)
신명 일기가 되려고 합니다. (나승은)
교만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교만해지면 일깨워 주십시오. (이인원)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공영록)
중창단 선교팀을 결성하여 찬양을 통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성범)
작은 자를 옹호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며 어떤 일도 감사하면서 충성하 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성영)

안수집사 중창단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연합하면서 먼저 은혜롭고 서로서로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찬양 이전에 먼저 마음을 십자가에 일치시킨다. 이 것이 바로 우리가 이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이다. (편집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로 인하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무런 공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시며 내 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 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지금은 나그네 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저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돌지 않고 계시며, 나의 신을 소리가 지도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이전에 세상 낙 기뻐왔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 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슬릴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 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나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 기를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 사랑.' 아멘

(권미숙 집사/일마누엘 천일대)

새 가 록 읍 읍 합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35	문준호	14	청년2부	이인원(목)	2850	폴	19	외선부	황진미(목)
2836	박진갑	5	장년1부	이영학(목)	2851	백성현	19	고동부	최한림(목)
2837	김준현	5	장년1부	류기영(목)	2852	오하나	19	청년1부	최한림(목)
2838	김정림	7	청년2부	홍복기(목)	2853	손순만	13	청년2부	김병수(목)
2839	박신주	18	청년1부	황인애(목)	2854	김현숙	13	청년2부	전순애(목)
2840	김택현	5	장년1부	김영희(목)	2855	박광도	11	장년3부	원갑재(목)
2841	김형훈	5	중동2부	고진애(목)	2856	니르만디호	19	외선부	지복길(목)
2842	김기배	19	대학부	박태준(목)	2857	오르타비르	19	외선부	바트게틀(목)
2843	오영기	19	외선부		2858	버르타르크	19	외선부	지복길(목)
2844	최순애	8	장년2부	박영순(목)	2859	박병준	1	청년2부	이승계(목)
2845	김경민	3	청년2부	김근애(목)	2860	오미영	19	청년1부	김동욱(목)
2846	이혜미	19	청년1부	안혜영(목)	2861	이형욱	2	청년2부	
2847	김현미	1	청년2부	김정희(목)	2862	오주선	13	청년2부	이연진(목)
2848	서정호	8	장년2부	김성호(목)	2863	신필호	2	장년2부	
2849	조영민	19	중동3부	강갑기(목)	2864	박학욱	19	청년2부	이우연(목)

* 중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